

## HEADLINE NEWS

###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개발 프로젝트 추진 (솔트레이크시티)

미국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는 Unity Center의 개발 및 Sorenson Center의 확장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근 공청회를 열었다. 市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의견이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최상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9월 18일, 20일, 27일 3회에 걸쳐 열렸으며, 공청회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소모임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市당국에 의견을 제시했다.

市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정리, 검토한 후 지역사회 지도자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정위원회에서는 관련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市는 이들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시민 생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ci.slc.ut.us/mayor/pressreleases/unity%20center%20public%20proccess%20release.htm](http://www.ci.slc.ut.us/mayor/pressreleases/unity%20center%20public%20proccess%20release.htm))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보행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평가와 의견 수렴 텐버

### 도시환경

- ② 환경친화적 주택 건설 행사 「그린빌딩 엑스포」 개최 (피닉스)
- ③ 디젤 및 전기 병합 연료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차세대 버스 도입 (런던)

### 도시교통

- ④ 대중교통 통합운영시스템 시행 (멜버른)
- ⑤ 대중교통정보 무료제공서비스 「i+ Point」사업 실시 (런던)
- ⑥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한 캠페인 행사 개최 (런던)
- ⑦ 도심 출퇴근 교통량 감소 위해 환승주차장 이용 촉진 (테네시州: 녹스빌市)
- ⑧ 출근시간대 학교주변의 교통정체 막기 위해 자가용 등교 제한 추진 (런던)

### 사회복지·문화

- ⑨ 市와 기업이 공동으로 문화예술축제 개최 (뉴욕)

### 행재정

- ⑩ 市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 안내책자 발간 (뉴올리언스)
- ⑪ 근린공원 내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Park CrimeWatch」 프로그램 실시 (인디애나폴리스)
- ⑫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어린이 거리안전 '교육프로그램' 실시 (뉴캐슬)
- 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위해 인터넷 기반 광역 비상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캔자스시티)

#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① 「보행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평가와 인견 수렴 (덴버)

미국 덴버(Denver)시는 최근 인터넷상으로 「보행기본계획(Pedestrian Master Plan)」 초안에 대한 시민 의견 및 평가를 구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보행을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핵심 고리로 파악하고, 이를 위해 안전성, 접근성, 공공교육, 연계성, 거리 풍경, 토지 이용, 공공보건의 7대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성은 편리한 이동성의 제공, 공공교육은 안전 법규와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 거리 풍경은 아름다운 주변 경관에 대한 고려와 교통의 완충 역할 제공, 토지 이용은 복합적 용도 개발의 촉진, 공공보건은 보행이 주는 혜택을 뜻한다.

이 계획에서는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100여 개의 주요 보도에 대한 기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 계획의 수행을 위해서는 부서간 관계, 정책, 책임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잠재적인 자원과 프로젝트의 연차별 계획을 설정했다. 현재 시는 이 계획안에 대한 논평이나 의견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고 있다. 시는 이를 기초로 계획안을 수정, 시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올해 말부터 향후 10년간 이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www.denvergov.org/newsarticle.asp?id=6116](http://www.denvergov.org/newsarticle.asp?id=6116))

### ② 환경친화적 주택 건설 행사 「그린빌딩 엑스포」 개최 (피닉스)

미국 피닉스 시청의 중앙 홀과 광장에서 「그린빌딩 엑스포(Green Building Expo)」가 최근 열렸다. 올해로 6회째인 이 행사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애리조나주 사막의 미관을 보전하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출품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주택을 현장에서 직접 소개하고, 강연자들이 환경 보존의 혜택을 설명하기도 했다. 수자원 보존, 태양 에너지 등 대중에게 친숙한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인 ‘그린’ 주택을 경제적으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www.ci.phoenix.az.us/NEWSREL/grexpo.html](http://www.ci.phoenix.az.us/NEWSREL/grexpo.html))

#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3 디젤 및 전기 병합 연료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차세대 버스 도입 (런던)

세계에서 가장 최신형인 버스가 영국 런던의 루트 360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차세대 버스로 불리는 'Carbonbuster' 버스는 독특한 '디젤+전기' 병합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버스는 기존 버스에 비해 연료소모량을 1/3 감소시키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감소시킨다. 또한, 전통적인 단층버스에 비해 약 25%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고, 통로가 넓으며, 노약자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정부는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20%가 교통부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주목, 이 버스를 내년부터 대도시에 적극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Metro, 2003. 9. 24)



### 4 대중교통 통합운영시스템 시행 (멜버른)

호주 멜버른시는 금년 9월부터 철도, 트램, 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운영시스템 「Metlink」를 시행중이다. 650만 달러가 투자된 이 시스템은 여러 대중교통의 독자적 운영으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운영 시작과 동시에 'Enjoy the Ride'라는 홍보 캠페인도 함께 벌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환승할 때 소요되는 시간 절감을 위해 통합운행시간표를 구축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선 안내책자를 발간했고, 교통수단마다 색깔을 달리해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당국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2020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자가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heraldsun.news.com.au/common/story\\_page/0,5478,7115217%5E2862,00.html](http://www.heraldsun.news.com.au/common/story_page/0,5478,7115217%5E2862,00.html))

### 5 대중교통정보 무료제공서비스 「i+ Point」 사업 실시 (런던)

영국 런던 TfL(Transport for London)은 대중교통 무료정보서비스 「i+ Point」 사업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市가 추진중인 「Journey Planner」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운행시간표와 최적노선 및 실시간 연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다양한 지역교통정보, 지역뉴스, 이메일, BBC 뉴스 등도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의 호응이 높는데, 시민들은 터치스크린을 눌러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fL은 서비스 확충을 위해 현재 100여 곳에 「i+ Point」를 설치했고, 향후 호응도를 평가해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Metro, 2003. 9. 25)



### 6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한 캠페인 행사 개최 (런던)

영국 런던의 TfL(Transport for London)은 최근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도심 3곳에서 개최했다. '4마일-22분'이란 타이틀이 붙은 이 행사는 자전거가 빠르고 저렴할 뿐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숙련된 프로급 자전거 이용자들이 참가해 일반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경로를 소개하기도 했다.

TfL의 연구에 따르면, 市에서 발생하는 통행량의 절반 가량이 자전거로 이용 가능한 단거리 통행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안전한 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자전거 이용을 꺼리고 있다. TfL은 앞으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etro, 2003. 9. 19)

### 7] 도심 출퇴근 교통량 감소 위해 환승주차장 이용 촉진 추진 (테네시주: 녹스빌시)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시는 도심 출퇴근 교통량 감소를 위해 「Park & Ride」 촉진을 추진 중이다. 특히, 환승주차장과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의 도착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미 20여개 도시에서 운영중인 버스이용정보 안내시스템인 'NextBus'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환승주차장은 당분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계획이다.

([www.knoxnews.com/kns/business/article/0,1406,KNS\\_376\\_2200446,00.html](http://www.knoxnews.com/kns/business/article/0,1406,KNS_376_2200446,00.html))

### 8] 출근시간대 학교주변의 교통정체 막기 위해 자가용 등교 제한 추진 (런던)

최근 영국 정부가 부모들이 차로 자녀를 등교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자가용 등교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 주변 주차장을 없애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는 자가용 등교로 인해 출근시간대에 학교 인근도로가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아침 교통량의 1/5 가량이 자가용 등교 차량인데, 통행 거리가 1~2km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해 유발 측면이나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 발육을 위해서도 자가용 등교는 좋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향후 학교 주변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줄이고,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통학버스 등을 늘려 자가용 등교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측이 자가용 등교 규모를 일정학생 수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대중교통이 불충분하고, 아이들이 걷거나 자전거로 등교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이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등교차량의 정체 유발 정도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Guardian, 2003. 8. 31)

#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세계도시동향

### 9] 市와 기업이 공동으로 문화예술축제 개최 (뉴욕)

미국 뉴욕市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문화예술축제 「CultureFest 2003」을 최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격조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이 전시되는 무료 문화예술축제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100여 개의 예술·문화 단체들이 전시프로그램, 공연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였고,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서트, 댄스, 페이스페인팅, 꼭두각시춤 공연, 공예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이 행사는 Battery Park, Ellis Island, Hudson River에서 개최되었으며, 市 관광안내센터 등을 통해 축제정보가 제공되었다.

([www.nycvisit.com/content/index.cfm?pagekey=645](http://www.nycvisit.com/content/index.cfm?pagekey=645))

### 市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 안내책자 발간 (뉴올리언스)

미국 뉴올리언스(New Orleans)市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市정부 서비스에 관한 안내책자 「Citizen Guide to City Services」를 발간했다. 이 시민 안내책자는 市의 각 부서, 기관, 사무소, 위원회 소개와 함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내책자의 내용을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Index of Service'라는 색인을 마련, 市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市는 이 안내책자의 발간으로 市정부의 책임성과 접근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안내책자는 시청,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으며, 市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www.new-orleans.la.us/home/mayorsOffice/press.php?page=Articles/091003CitizenGuide.html](http://www.new-orleans.la.us/home/mayorsOffice/press.php?page=Articles/091003CitizenGuide.html))

### ④ 근린공원 내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Park CrimeWatch」 프로그램 실시 (인디애나폴리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시는 근린공원 내 범죄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Park CrimeWatch」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 경찰국, 공원경비대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 범죄 등을 근절하고, 공원 시설물에 대한 파괴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시행중인 「CrimeWatch」 프로그램을 확대·발전시킨 것인데, 기존의 「CrimeWatch」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상한 행동이나 범죄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근린공원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www.ci.indianapolis.in.us/mayor/press/2003/august/03-08-05a.htm](http://www.ci.indianapolis.in.us/mayor/press/2003/august/03-08-05a.htm))

### ④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어린이 거리안전’ 교육프로그램 실시 (뉴캐슬)

영국 뉴캐슬시는 어린이 대상 거리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영국 교통부로부터 3년에 걸쳐 9만 파운드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이는 어린이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리의 위험요소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 220만 파운드 중 일부이다. 영국정부에 따르면, 빈곤지역 출신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 출신 어린이들 보다 보행 중에 사망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5~7살 어린이들의 거리안전 교육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거리안전 교육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킬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하는 데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14개 초등학교는 1999~2001년에 어린이 보행 관련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다.

([www.newcastle.gov.uk/newsrel.nsf/b8da7086f70880de8025677c002ee58d/c35eb235d862600b80256d830034f8f6?OpenDocument](http://www.newcastle.gov.uk/newsrel.nsf/b8da7086f70880de8025677c002ee58d/c35eb235d862600b80256d830034f8f6?OpenDocument))

### ④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위해 인터넷 기반 광역비상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캔자스시티)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는 테러 및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비상정보시스템(emergency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계획이다. 'Mid-American Regional Council' 주도로 추진되는 이 계획은 市 주변지역의 8개 카운티 및 인접한 다른 州의 도시들까지 대상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예정이다.

市는 2004년 초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시 관계기관이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신속한 상황 대처능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市당국은 이 광역시스템이 미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향후 병원, 구급차 서비스업체 등 민간부문에도 이 시스템을 개방할 방침이다.

([www.stateline.org/story.do;jsessionid=njrluqj0y1?storyId=321483](http://www.stateline.org/story.do;jsessionid=njrluqj0y1?storyId=321483))